광주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2명 첫 확진…가족이 감염원

관련자 광주 전지역·함평 분포…추가감염 차단 주력

광주 10일 동안 84명…누적 확진자 117명으로 증가

광주에서 첫 미취학 아동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광주시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광주 누적 확진자는 117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광주지역 집단 감염지인 일곡중앙교회에 다니던 30대 여성 1명(광주 116번)과 동구 산수동에 사는 40대 여성 1명(광주 117번)이다. 이 가운데 광주 116번은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중 발열 증세 등을 보여 재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달 27일부터 이날까지 10일 동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시민도 84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지난 5일 밤 늦게 동구 다솜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2명이 가족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원생과 보육교직원, 관련 직계가족,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육실습학생, 특별활동강사 등 222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중이며,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솜어린이집 상주자의 거주지들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함평 등에 분포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가 감염을 막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솜어린이집 관련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까운 보건소 등 희망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매 관계인 다솜어린이집 원생 2명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지역 113번과 114번 환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지난 3일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했다. 남매들은 동구 금양오피스텔(금양빌딩)인 110번 확진자의 외손주로, 가족감염으로 추정된다.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된 남매는 현재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할머니인 110번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서 공동 치료를 받고 있다. 110번 확진자는 남매보다 먼저 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다.

보건 당국은 11일까지 다솜어린이집에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 동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2주간 휴원조치하고 긴급돌봄교실 참여 자제를 권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2차 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이날부터 18일까지 어린이집 1073곳을 전면 휴원하기로 했다. 휴원 기간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보육교사는 평소대로 근무하고, 시간제 보육 기관 29곳은 정상 운영한다.

시는 또 7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공·사립 유치원 284곳에 대한 등원 중지 결정을 내리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 동구 다솜어린이집이 원생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광주에선 처음으로 미취학 아동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149명

전담직원 1366명 배치…북구 격리센터 설치 집중관리

최근 10일 사이 광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자가 격리된 시민도 1000여명을 넘어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가 격리된 시민은 이날만 119명이 늘어 이날 오후 3시 현재 1149명에 이른다.

광주시는 자가 격리자 중 확진자도 나옴에 따라 자치구별로 전담 공무원과 관리 직원을 확대해 1366명을 배치했다. 확진자가 많은 북구는 자가 격리센터를 설치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날 추가된 116번 확진자도 일곡 중앙교회 신도로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교회 앞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자가 격리 중 발열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한 결과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50%가까이가 무증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 최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자 중 추가로 확진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먼저 자택 주소를 파악해 자가격리 통보서류를 직접전달하고, 휴대전화에 관리앱까지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후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 전달과 하루 2차례씩 이동여부 확인 등 투입되는 행정력이 만만치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전남지역도 이날 현재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된 전남도민은 831명이다. 이 가운데 확진자 접촉은 231명이며, 해외입국은 600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19 공기중 전파 가능성 "추가연구 필요"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 "기존 방역·예방수칙 유효"

정부는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기중 전파'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발표된 공기 전파의 위험성,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전염력, 전파력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세계 32개국의 과학자 239명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개서한을 보내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한은 이번 주 과학 저널에 실릴 예정이다.

에어로졸은 지름이 1㎛(100만분의 1m)에 불과한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미립자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훨씬 작다. 그간 WHO는 코로나19가 주로 큰 호흡기 비말(침방울)에 의해 감염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연구는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뿐 아니라 공기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작은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수 시간 공기에 체류하고 2m 이상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는 비말 전파, 접촉 전파, 그리고 매개물(개달물)을 통한 간접전파"라면서 "이에 더해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방역·예방수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비말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한데 조금 큰 형태의 비말은 빨리 가라앉아서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지만, 크기가 작은 비말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무게가 가벼워지고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부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소재산업 도약 기대

2024년까지 전주·군산·완주 등 176㎢서 실증사업 진행

국내 기술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생산 탄소섬유만 사용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탄소소재 산업의 도약 기회가 마련됐다. 탄소소재법 개정,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이어 국산 탄소섬유 소재 자립화를 위한 가치사슬 체계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주, 군산, 완주 등 총 176.62㎢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일진복합소재를 비롯한 10개 기업,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포함한 6개 기관이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CFRP) 실증,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실증,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 사업에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이 생산하는 국내 기술로 제작한 탄소섬유만을 사용한다. 또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효성첨단소재가 연간 2만4000t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경우 도내 기업들이 30% 이상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특구 내에서 소재 생산, 중간재, 부품 종합재,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상생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특구 내에 전국 유일의 전주 국가탄소전용 산업단지가 2024년 조성되면 70여개 탄소기업이 입주해 연구기관 및 기업 집적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1740억원의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3637억원의 경제 효과, 386명 직접 고용, 1천16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전북도는 지난 5월 탄소소재법 통과, 특구 지정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본격화하고 탄소소재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국내외 탄소소재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전북도, 광주 아픔 보듬는다…치료병상 21개 공유키로

전북대·원광대병원·군산의료원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의 아픔을 함께 보듬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을 공유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광주광역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권역별 병상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도내 의료기관의 21개 병상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유 병상은 전북대병원 10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3, 호흡기음압병상 7), 원광대병원 1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 군산의료원 10병상(일반병상 10) 등 도내 3개 의료기관의 21개 병상이다.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광주, 전남과 공유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재 병상 57개(전북대병원 17, 원광대병원 6, 군산의료원 34)를 확보하고 있으며, 환자발생 규모에 따라 단계별 병상 확보를 통해 최대 338병상까지 환자 수용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우리도는 이번 병상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광주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음을 인지하고 힘을 합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지중화 공사 구간 확정 공고 안내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후문 회전교차로 ~ 완동회전교차로 구간의 지중화 확정지역 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중화공사 목적 :** 죽녹원 후문 미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공간 확보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2 **지중화 확정지역**
- 죽녹원 후문 회전교차로(시점) ~ 완동 회전교차로 방향
  -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산112-1도로 일대 (0.52km)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0.10 ~ '20.12 (3개월 간)

4 **신증설고객 지중공급시행 기준일**
: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기타 문의사항 : 광주전남본부 담양지사 (☎ 061-380-0240)**

※ 지중화 확정지역 위치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담양지사

합 병 공 고

농업회사법인 스마트팜 주식회사("갑")와 퓨처네이처 주식회사("을")는 2020년 06월 25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07일

"갑": **농업회사법인 스마트팜 주식회사**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829
대표이사 김 창 휘

"을": **퓨처네이처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170, 702호 (용봉동)
대표이사 김 창 휘

산행안내

7월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8일(수) 전남 여수 낭도 상산-둘레길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3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7월11일(토)

▲광주호산회 7월11일(토) 순창 송대봉 채계산 구름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12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7월12일(일) 충북 제천 월악산 국립공원(포암산 961m, 만수봉 985m), 염주체육관 05:20, 무등경기장 05:40, 동광주홈플러스 06:0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1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15일(수) 전북 장수 팔공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7월18일(토)

▲광주금당산악회 7월18일(토) 지리산 반야봉 삼도봉 뱀사골, 봉선동롯데마트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6:20, 염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산회 7월18일(토) 지리산 의신옛길(서산대사길) 대성골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2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22일(수) 전북 무주 남덕유 토옥동계곡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3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